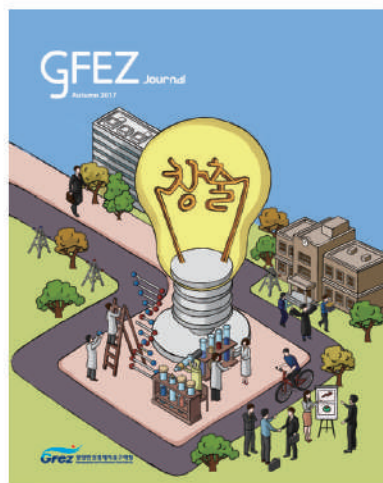




## Cover Story

신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국제무역도시 GFEZ  
세상의 문을 여는 광양만경제자유구역은 국제 비즈니스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을 갖춘 도시입니다.  
더 많은 기업과 인재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여 산업 가치 창출을 이루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 GFEZ Journal

Autumn 2017





#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끊임없는 열정과 도약

창출의 사전적 의미는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지어내거나 만들어 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치를 부여할 때 창출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그만큼 현시대는

끊임없는 아이디어와 신선한 정보를 높게 삼과 동시에 빠른 상황대처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상황이든 핵심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공략하는 것이 성과 창출의 노하우입니다.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는 핵심 기술을 이해하고 개인과 조직의 지속성장을 이끄는 프로가 돼봅시다.

## 知

### 04 65th Theme

꽃길

### 06 Theme Story

성과 창출을 돕는 '몰입의 심리학'

## 通

### 08 HOT Topic

세계를 리드하는 글로벌 인재의 요람!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 10 Brief News

광양청 8대 뉴스

### 14 Column

한 인간의 성장에 온 마을의 손길이 스미듯

### 16 Interview

진정성 있는 열정과 소통 능력으로

광양만권의 내일을 밝힌다 조충훈 순천시장

### 18 People

'완벽한' 정밀가공을 위해 달린다 ㈜삼미메탈

### 22 Invest in GFEZ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

광양세풍산업단지 조성

### 24 Local News

주요기관 소식 및 입주기업

## 言

### 26 Trip

깊어가는 가을색의 잔잔한 위안, 순천

### 30 Festival

오색 창연한 가을 빛 담은 축제속으로

### 32 Work

업무에 도움이 되는 직장인 칼럼

성공하는 직장인의 의미 있는 커리어 쌓기

### 34 Economy

자동차 할부!

알뜰하게 채기는 유용한 정보 TIP

### 36 Cartoon

기업홍보와 인력채용을 한자리에서 해결하는

전남동부권일자리박람회 개최돼요!

### 38 독자후기 & 이벤트 SNS

08 세계를 리드하는 글로벌 인재의  
요람!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14 한 인간의 성장에 온 마을의  
손길이 스미듯

18 '완벽한' 정밀가공을 위해 달린다  
(주)삼미메탈

22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  
광양세풍산업단지 조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GFEZ(Gwangyang Bay Area Free Economic Zone)는 동북아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육성시키고자 2003년 10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동북아 해운물류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비교우위의 산업인프라, 각종 규제 완화 및 지원정책으로 기업 친화적 환경을 갖춘 한국 경제 자유구역의 선두주자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저널 Vol. 65

발행인

권오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편집인

(주)DNS

발행일

2017년 10월 29일 (통권 제65호)

발행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061-760-5091~3)

간행물 등록번호

전남, 바00035

홈페이지

www.gfez.go.kr





## 꽃길

가치를 나누다는 것은  
서로의 존재를 알아보고 인정해주는 것  
더 넓은 눈으로 새로운 길을 찾는 여행

어떤 이에게는 누군가 불러준 이름이 꽃이 되었듯  
서로의 가치들이 어우러지는 이 길은 꽃길

가치를 나누다는 것은  
서로의 존재를 알아보고 인정해주는 것  
저마다의 꽃이 피어 길을 이루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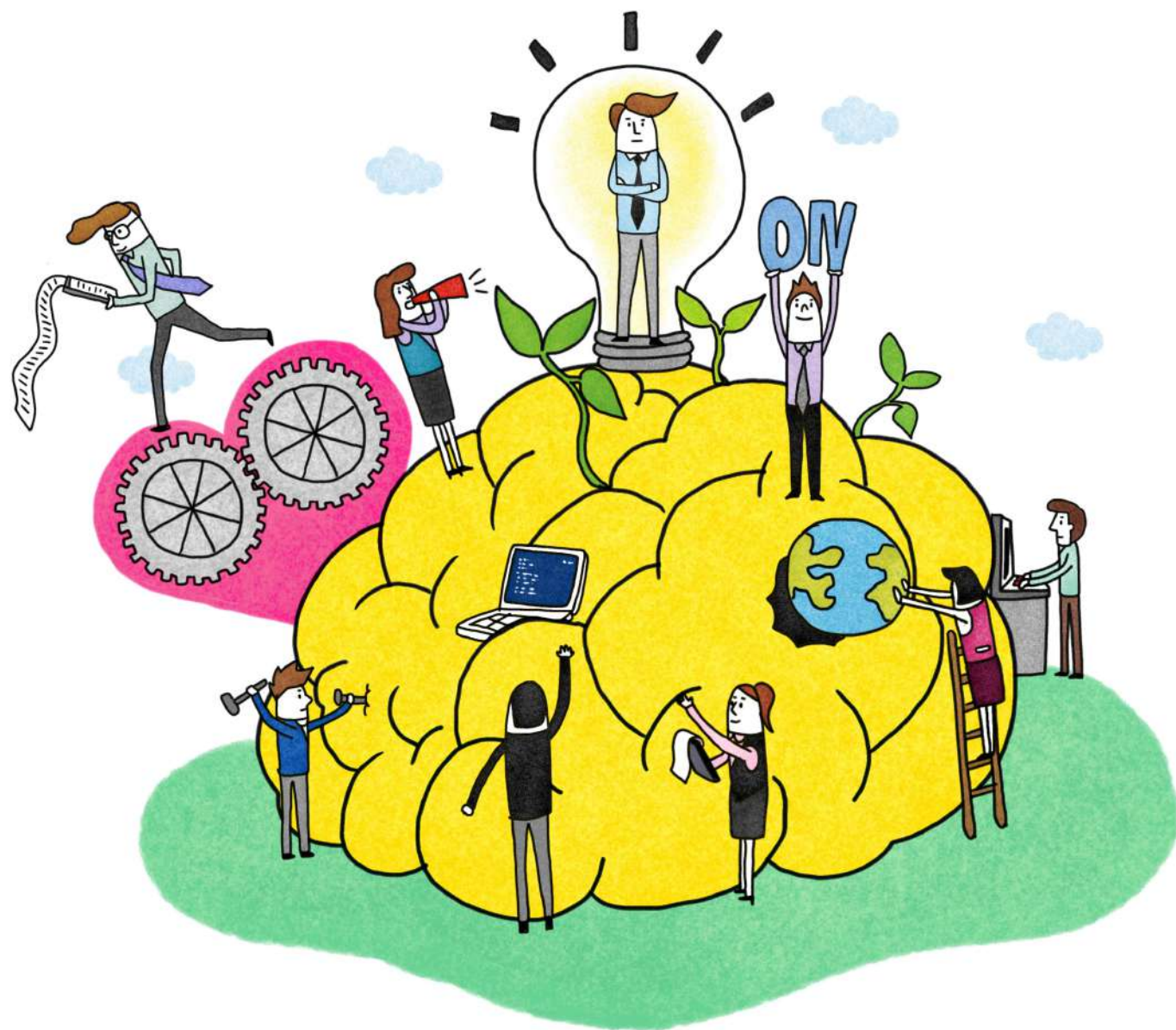




## Theme Story.

### 성과 창출을 돕는 '몰입의 심리학'

현대인은 무언가 검색하기 위해 포털사이트를 열었다가 자극적인 제목의 언론보도를 클릭해 하려던 일을 잊는다던가, 사람들과의 만남은 대화 사이사이에 SNS를 확인한다던가, 영화관에서도 휴대폰을 꺼놓을 수 없을 만큼 집중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상과 끝없이 연결되어 있어 스스로 분리하지 않으면 몰입에 빠져들기 어렵다.



한 분야의 일을 오랫동안 고민하고 해내다보면 자신만의 성과 창출 방식이 생긴다. 누군가는 꾸준히 지치지 않는 성실한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말하고 다른 이는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작은 경험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야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성과 창출에 있어 제일가는 방법은 자신의 특성을 알고 그에 맞는 성과창출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 몰입, 무언가에 흠뻑 빠진 심리상태

긍정 심리학계의 대표적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에 따르면 몰입(flow)은 '무언가에 흠뻑 빠져 있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무아지경으로 빠져들어 주위의 모든 잡념, 방해물을 차단하고 자신이 원하는 어느 한 곳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다. 단순한 말을 풀어 썼다고 느낄 만큼 우리에게 몰입이라는 단어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몰입에 빠져들기란 결코 쉽지 않다. 무언가 검색하기 위해 포털사이트를 열었다가 자극적인 제목의 언론보도를 클릭해 하려던 일을 잊는다던가, 사람들과의 만남은 대화 사이사이에 SNS를 확인한다던가, 영화관에서도 휴대폰을 꺼놓을 수 없을 만큼 집중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상과 끝없이 연결되어 있어 스스로 분리하지 않으면 몰입에 빠져들기 어렵다.

#### 성과창출을 부르는 '즐거운 단절'

칙센트미하이는 미술가, 음악가, 스포츠 선수들에 관해 연구하면서, 이들이 작업할 때 다른 모든 것을 잊고 집중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러한 경험이 계기가 되어 본격적인 몰입 연구에 나섰다.

칙센트미하이는 스키를 타고 산비탈을 질주할 때를 예로 들어 몰입을 설명했다. 그 때는 누구라도 몸의 움직임, 스키의 위치, 얼굴을 스치며 지나가는 바람, 눈 덮인 나무 등에 주의를 집중한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흐트러지면 넘어지기 십상이므로 다른 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 그러한 순간이 완벽한 몰입을 경험하는 순간이다.

몰입 상태에서는 평소와는 다른 독특한 심리적 특성이 나타난다. 먼저 과업에 대한 강렬한 주의 집중이 일어난다. 모든 주의력이 완전히 현재 과업에 투여되기 때문에 과업 이외의 활동에 대한 인식이 현저하게 약화된다. 이러한 주의집중은 애

써 노력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제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또한 과업에 푹 빠져 그 활동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관찰자적 인식이 사라진다. 자아의식도 사라져 '무아지경' 또는 '몰아지경'에 빠져든다. 하지만 이는 의식을 잃은 혼수상태와는 완전히 다르다. 칙센트미하이는 몰입 상태에서 자아는 완전히 기능하지만 스스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환경의 구분이 거의 사라질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도 망각하게 된다. 시간의 흐름에 대한 지각이 변형되어 시간이 보통 때보다 빨리 지나가고 많은 일들이 짧은 시간 안에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을 장악하고 있다는 강력한 통제감을 느낀다. 활동의 진행이나 성과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 주의 집중이 일어남에 따라 완전한 통제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 긍정심리학 전문가가 말하는 몰입을 위한 준비

몰입 경험은 그 자체가 즐거운 것으로 자기 충족적인 속성을 지닌다. 몰입 활동은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위한 내재적 동기에 의해 일어난다. 긍정심리학 전문가가 소개한 몰입에 최적 상태가 되기 위한 조건과 준비를 살펴보자. 첫째, 문제를 설정하라. 둘째,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라 셋째, 불필요한 외부 정보를 차단한다. 넷째, 혼자만의 공간을 정한다. 다섯째, 규칙적이고 땀 흘리는 운동을 하라. 여섯째,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라.

전문가들은 완전한 몰입 상태에 들어가는 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한다. 생각하는 주제에 여러 번 몰입해 익숙해지면 3일이면 충분히 몰입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날 설정된 문제를 분석하며 편안하게 주어진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다보면 둘째 날에는 잡념에 빠앗기는 시간이 줄어들어 주어진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아이디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셋째 날에는 주어진 문제를 생각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생각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한 해의 절반이 훌쩍 지나 성과창출에 욕심내게 되는 계절이다. 집중력이 흐려지고 마음만 조금해진다면 잠시 내려놓고 몰입의 시간에 빠져들어보자. 새로운 경험과 성과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2018년 3월 '하동으로의 초대'

## 세계를 리드하는 글로벌 인재의 요람!

##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2018년 3월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하동자구에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영국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가 개교될 예정이다.



뛰어난 산학협력 및 공동연구로  
96.6%의 취업률!  
노벨상 수상자 5명 배출!  
250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TOP 1% 명문대학!

1495년 설립된 애버딘대학교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등과 더불어 영국의 유서 깊은 대학으로, 523년의 역사와 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다.

특히, 애버딘대학교가 소재한 애버딘시는 북해 유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미국 휴스턴과 더불어 세계 해양플랜트 산업의 고급 인재 양성과 첨단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며, 270여개의 세계적인 해양플랜트 메이저 기업체, 대학, 연구기관의 협의체인 Subsea UK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유럽의 에너지 수도(Energy Capital)로 불린다.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교육과정은 ▶ 1년 과정의 공학석사 과정(3개 과정, 입학정원 100명)에 석유공학(33명), 상부설비공학(34명), 해저공학(33명, 2019년 개설) ▶ 1년 과정의 에너지 MBA과정(입학정원 25명) ▶ 3년 과정의 공학박사 과정(입학정원 20명)으로 구성된다.

향후, 미래 유망신규과정에 대한 수요조사도 실시하여 신재생에너지공학, 해체공학 과정 등을 추가 개설하여 본교 못지않은 세계적인 대학으로 키워나간다

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 현재의 해양플랜트 설계 엔지니어링 원천기술의 전적인 해외의존을 탈피하여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를 제고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세계 1위 조선해양산업 강국'의 영광을 되찾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입학생들은 산업계 최고 전문가와 영국 본교 현지 교수진의 100% 영어수업과 글로벌 기업과의 산학 연구, 인턴십 지원 등을 통하여 탁월한 인재로 발돋움 하여 하동 해양플랜트연구단지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적자본으로 육성될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영국 본교와 동일한 학위를 수여받음으로써 세계 곳곳에 포진한 동문 네트워크를 통한 기회 확대와 높은 글로벌 취업 경쟁력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수한 장학제도와 최첨단 기숙시설은 예비 입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매력포인트이기도 하다.

한편, 권오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세계최고 수준의 교육과정이 개설되는 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입학하여 세계 해양플랜트 산업의 리더가 되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BUSINESS

## 01/

**광양 세풍일반산업단지 1단계 부지  
준공, 투자유치 총력  
입주기업 공장 착공 여건 완비,  
본격적인 산단 분양 추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에 조성 중인  
광양 세풍일반산업단지 1단계 부지조성  
공사가 6월말 준공되었다. 2020년까지  
총 5,08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42㎢  
(73만평) 규모로 개발되며, '15. 10월 1단계  
0.49㎢(15만평) 공사가 시작되어 21개월만  
에 단지조성이 완료되었다.

지난 1월 1단계 부지에 대하여 광양경제청

으로부터 처분계획을 승인받고 분양 공고를  
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3.3㎡당 85만원으로  
14% 할인 분양 중에 있다.

현재 세풍산단 제1호 기업으로 (주)한국창호  
가 하반기에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며,  
용복합소재실증화지원센터가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세풍산단은 8만3천㎡(2만5천평) 규모의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될 예정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공장용지를 임대 분양하여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며 현재 광양경  
제청과 5개사(미국 1, 중국 2, 일본 2)가 협의  
중에 있다. 한편, 금년 하반기에는 각 출자사  
간 금융 조달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2단계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 BUSINESS

## 02/

**광양만권경제청,  
49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울촌·해룡산업단지에 3개 기업 투자**

광양경제청은 6월 30일 청사 2층 상황실  
에서 (주)자원솔루션, (주)아트온, (주)우딘  
코스매틱 등 3개 기업과 투자금액 49억  
5천만원, 고용인원 53명 규모의 투자협약  
(MOU)을 체결했다.

(주)자원솔루션은 울촌산업단지에 25억원을  
투자하여 6,600㎡ 부지에 풍쇄 슬러그  
제조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고용인원  
20명으로 지역일자리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아트온은 해룡산업단지에 11억원을 투자  
하여 2,480㎡ 부지에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며, (주)우딘코스매틱도  
해룡산업단지에 13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2,459㎡부지에 화장품 제조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 두 회사의 고용예정인원은 33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오봉 청장은 “오늘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은 울촌산단과 해룡산단의 원료조달  
용이성과 고효율 물류환경 등 이점을 고려  
하여 투자를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에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며, 3개사의 투자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 BUSINESS

## 03/

**광양경제청,  
식중독 등 감염병 발생 제로화 총력  
산단 내 집단급식소 관계자 특별 위생교육**

광양경제청은 7월 5일 대회의실에서 경제  
자유구역 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및 급  
식소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수가 이용  
하고 있는 집단급식소에서의 식중독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겨울철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조류인플루엔자(AI)가 최  
근  
계절과 무관하게 초 여름철에 발생함에  
따라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경제  
자유구역내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등 각종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체에 25개소,  
학교 및 유치원 7개소, 어린이집 4개소,  
병원 내 2개소 등 총 38개소의 급식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그 중 산업체  
급식소를 이용하는 근로자가 하루 평균  
6천5백명에 이른다.



## BUSINESS

## 04/

**광양경제청,  
2017년 상반기 1기업 1도우미 활동 완료  
맞춤형 기업 밀착 관리로 기업애로  
해결사 역할 톡톡**

광양경제청은 기업 경영동향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2017년  
상반기 1기업 1도우미제」를 내실 있게  
마쳤다고 밝혔다. 1기업 1도우미제는 광양  
경제청 직원을 경제자유구역내 입주한  
기업과 1대1로 매칭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대표적 기업지원시책 중 하나다.  
도우미로 지정된 직원들은 매칭된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은 물론 각종 지원시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는 등 입주기업별 전담 지원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도우미 활동결과 총 11개 기업







에서 산업단지내 기반시설 설치·보수 8건, 방역 및 환경정비 관련 4건 등 총 12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되었다. 애로사항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한 것은 담당 도우미 책임하에 즉각 처리하였으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담당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통보해 해결할 계획이다.

광양경제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1기업 1도우미제 운영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 BUSINESS

### 05

#### 광양청, 종이없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본격 시행

부동산 실거래신고 자동완료,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 장점 많아

광양경제청은 8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광양

만권경제자유구역내에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에 작성하던 거래계약서 대신 태블릿 PC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전자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자계약을 하면 부동산 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중계약, 계약서 위·변조 등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차단되며, 도장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며 별도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공인기관에 계약서류가 안전하게 보관돼 24시간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전자계약은 전세권 설정,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약 30% 가량 절감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의 부동산서류 발급이 필요 없으며, 은행 대출시 우대금리 등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 BUSINESS

### 06

#### 광양경제청, 중국 중남부지역 투자유치활동 전개

향후 한중일 콜드체인 거점기반 마련 투자설명회 및 관련기업 방문상담

광양만권경제청은 9월 14일부터 7일동안 중국 중남부지역 핵심도시인 허난성(河南省) 등을 방문하여, 투자유치활동을 하였다

또한 9월 18일 허페이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협력, 광양만권내 한중일 콜드체인 거점 구축 관련 농식품기업 20여개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 투자설명회에서 화원식품(華園食品), 구이왕식품(桂王食品)사와 1600만불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번 투자유치활동은 최근 농식품가공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농도(農道)인 전라남도, 광양항의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한중일 콜드체인 거점 및 식품산업클러스터”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와 투자상담을 진행하였다.

이후 19일부터 20일까지 선전시(深圳市)를 방문하여 선전시 등과 공동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세풍산업 입주의향 기업인 선전캐플랜드와 타깃기업인 선전농식품유한공사(深農食品有限公司)를 방문하여 투자상담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봉 청장은 “금번 합동 투자유치활동은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고, 광양만권이 한중일 콜드체인 거점 및 식품산업클러스터로 발전할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 BUSINESS

### 07

#### 순천 선월지구 개발 상세계획 협의 착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선월지구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 이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권오봉)에서는 순천 선월하이파크단지(이하 ‘선월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선월지구는 계획인구 16,3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20년까지 0.98㎢(30만평)의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 2,63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양경제청에서는 2016. 6월에 사업시행자를 중흥건설(주)로 결정하고,



산업부로부터 지난해 말에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연내에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을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선월지구는 광양만권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지구로 신대지구와 연계한 주거, 상업, 문화 등 복합기능의 시설을 반영해 우리나라 남중부권을 대표하는 명품택지로 부각될 전망이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지난 18일에 사업시행자인 중흥건설(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앞으로 순천시 등과 협의를 거쳐 연내 실시계획을 승인 할 계획”이라며, “선월지구가 우리 지역의 명품택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BUSINESS

### 08



#### 광양경제청, 제2차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하반기 GFEZ 중점추진과제 추진방안 논의

광양경제청은 광양만권 지역발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광양만권의 중장기 발전 목표와 정책방향 제시 등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신규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GFEZ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GFEZ 경도지구 대체지정 추진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2단계) 추진 ▲한중일 콜드체인 및 식품 가공 클러스터 구축 등 13건의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를 설명하고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됐다.

권오봉 청장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과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자문위원들에게 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이나 GFEZ 정책방향 등에 대한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새로움의 창출은 늘 멈춤 없는 현재진행형

## 한 인간의 성장에 온 마을의 손길이 스미듯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일은 숭고합니다.

그 숭고함의 극치는 아마도 생명의 탄생과 성장일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자라는 데는 온 마을이 돕는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고 먹이는 사람은 부모이지만,

그 아이가 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라는 과정에는 수많은 이들의

크고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웃 할머니의 쓰다듬, 동네 형들 누나들의 보살핌, 심지어 마을 어귀 정자나무의 그늘까지, 모든 건강한 기운들이 아이의 하루하루에 고스란히 깃들입니다. 그 무수한 돌봄의 손길 덕분에 아이는 몸과 마음이 두루 건강한 성인이 됩니다.

우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일에 임하는 자세를 ‘온 마을이 아이의 성장을 돕는 일’에 빗대어 봅니다. 감히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우리는 기업들의 입주와 성장을 돕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늘 다방면의 지원을 고민하는 조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30일 광양만청은 3개 기업과 총 49억5천만 원의 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울촌산단과 해룡산단에 공장을 세울 것입니다.

울촌과 해룡산단은 원료 조달이 쉽고 물류환경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기업들은 이 점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했고, 이번 협약은 향후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에서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광양만청은 이들 기업의 투자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6월 유럽 투자유치 대표단을 꾸려 프랑스와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한중 FTA를 포함해 최근 급속히 확대된 ‘FTA 플랫폼’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홍보하고, 세풍산단과 기능성화학소재 분야의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투자유치 틈새시장을 선점하는 교두보를 마련한 점에서 특히 의미가 큼니다. 그간 유럽지역 투자유치 활동이 주로 서유럽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 지역과 산업 범주를 넓혀 동유럽지역으로도 진출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광양만청은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 나서고자 합니다.

“세계적 명문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는 하동 갈사만 조선해양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큰 자산이 되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해양플랜트 분야의 전문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연구기지가 될 것입니다.”

투자설명회에서 유럽기업들은 한국의 FTA 플랫폼 활용과 글로벌시장 진출 방안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예시로 폴란드 최초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보루타자켄사는 우리 광양만권에 조속히 투자할 것임을 표명했습니다.

최근 2017년 상반기 ‘1기업 1도우미제’도 내실 있게 마쳤습니다.

이 제도는 입주기업과 1대1로 연결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해결에 나서는 대표적 기업지원정책 중 하나입니다.

우리 광양만청의 도우미 직원들은 입주기업별 전담 지원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도 총 11개 기업에서 12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했고,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움이 창출되는 과정은 때로 긴 숙성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하동에 세워지고 있는 세계적 명문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는 개교 시점을 내년 봄으로 정했습니다. 당초 올가을로 예정했으나, 준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장차 이 대학은 하동 갈사만 조선해양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큰 자산이 되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해양플랜트 분야의 전문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연구기지가 될 것입니다. 백년지대계의 일이자 국내에 선도적인 사례를 만들어내는 과정인 만큼, 더 깊은 관심과 기다림의 마음으로 이 숙성의 시간을 지켜봐주셨으면 합니다.

가을입니다. 곡식이 익고 들녘을 뛰노는 아이가 한 뼘 두 뼘 커가는 풍경은 그 안에 이듬해 성장의 씨앗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움의 창출은 늘 멈춤 없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우리 광양만청의 마음가짐과 같습니다. 풍요로운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광양만권

## 진정성 있는 열정과 소통 능력으로 광양만권의 내일을 밝힌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민주당 김대중 총재 특보  
·한국청년회의소(KC) 제40대 중앙회장  
·한국청년정책연구소 초대 이사장

### 조충훈 순천시장

Q 시장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순천시장 조충훈입니다. 바람에 사각거리는 갈대 소리에 청량한 가을 향이 느껴지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민선 3기 제4대 순천시장에 당선되면서 대부분 도시가 공장을 짓고 개발에 힘을 쓸 때 전 자연과 생태가 시대정신으로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급수의 동천이 1급수로 복원되고 순천만이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되고 그 후 많은 관광객이 순천만을 찾게 됐습니다. 순천만으로 도심이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정원박람회를 개최 440만 명이 다녀가는 성공적인 박람회가 됐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인정해 그 후 순천만 정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 정원으로 지정되는 등 순천시는 자연과 생태, 정원의 도시 브랜드를 갖게 됐습니다. 더불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2회 연임하면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에도 적극 노력했습니다. 이제 자연과 생태에 문화와 예술을 덧붙여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서 아시아 생태문화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Q 광양만권 상생 발전을 위해 3개시 광역교통망을 구축코자 노력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A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광양만권교통 SOC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됐습니다. 이순신 대교 개통으로 10분 만에 여수와 광양을

오갈 수 있게 되고 도시 간 인접 지역에 신도시가 개발되어 생활권의 경계가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광역교통망 구축은 정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외부 용역을 실시한 결과 지역민의 70% 이상이 광역교통망 구축에 찬성하고 있는 등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와 시 사이를 시내버스 노선으로 연결해 무료 환승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제시됐습니다.

현재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 광역교통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성과를 못 내고 있어 아쉽습니다. 자치단체 간 시내버스 운행 횟수나 운행 거리가 서로 달라 버스 업체의 이해관계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광역교통망 구축은 여수, 순천, 광양 발전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광양만권 최고 주택단지로 뽑히는 신대지구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A 신대지구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2008년 착공, 인구 3만 명을 목표로 5,600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된 명품 주거공간이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중심 도시입니다. 지금까지 기적의 놀이터 조성, 생활도로개선사업, 생태 회랑 정비, 가로수 숲길조성, 옥녀봉 공원화 사업 등 시민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올해 신대지구 주민들의 행정편의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 대행정복합시설을 신축하여 출장소, 도서관, 어린이집, 주민회의 장소 등을 제공하는 등 가장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 및 원도심 등에서 신대지구 간 간선 도로망 확충사업인 팔마사거리에서 신대지구 간 도로를 2017년 9월 중 개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향후, 삼산중학교의 신대지구로의 이전 추진, 건강 생활지원센터, 소방파출소, 신대스포츠센터, 유소년 다목적수영장, 로컬푸드 건립 등 부족한 공공건물을 신축하여, 명품 주거 단지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의견은?

A 광양만권은 동북아시아 신산업·관광·물류의 중심도시로 국내 총생산의 1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잠재력이 무한한 지역입니다.

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양만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전체적인 이득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새 정부에 들어서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순천·여수를 세계적인 생태-해양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 전남 남부해안지역을 호국관광벨트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광양만권이 협력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경쟁력과 규모를 키우기 위해 도시통합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도시통합은 3개 시 시민들의 정서적 동의를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시통합에 앞서 인접한 도시들이 행정 경계를 초월해 공동 계획을 수립해 분야별 사업과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도시 연합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3개 시 시민들은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고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경제인, 학계, 연구기관 등이 경쟁보다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해결해 나간다면 광양만권은 경쟁력을 갖게 되고 시너지 효과도 높아질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 People

취재 최성주  
글 안이슬

전남 제일의 정밀 가공업체

‘완벽한’ 정밀가공을  
위해 달린다

## (주)삼미메탈

(주)삼미메탈은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서비스로 미래의 일류기업에 새롭게 도전한다’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레이저 절단, 절곡, 밴딩 등의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 제일의 정밀 가공업체’를 목표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자재생산 기술과 시공기술 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언제나 책임 있는 시공을 약속한다.



“독일 트럼프사 레이저, 사링기, 절곡기, 이태리 밴딩기, 최신형 프라즈마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청 실용신안등록, 유사의장등록 등의 기술인증을 획득한 탄탄한 정밀 가공기업이다.”

인터넷 서핑을 하다보면 ‘마음이 안정되는 사진.jpg’라는 제목의 사진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아귀가 맞지 않는 보드블록을 조각내 빈틈없이 맞추거나,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진 물건들의 이음매를 맞춰 완성된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이다.

사람들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상에서 새롭게 탄생한 사물들의 완벽한 모습을 보며 잠시 위안을 얻는다. 아귀가 딱 맞는 ‘완벽함’이란 그런 것이다.

(주)삼미메탈은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서비스로 미래의 일류기업에 새롭게 도전한다’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레이저 절단, 절곡, 밴딩 등의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 제일의 정밀 가공업체’를 목표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자재생산 기술과 시공기술 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언제나 책임 있는 시공을 약속한다.

광양만권에서 더욱 성장하는 기업, (주)삼미메탈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대표 남백원

삼미메탈은 정밀 가공업체로 레이저 절단, 절곡, 밴딩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다. 타 기업과 비교해 경쟁력이 무엇인지?

저희 삼미메탈은 절곡, 밴딩을 주력으로 하는 가공업체다. 업계에 훌륭한 경쟁업체들이 있지만, 저희 삼미메탈은 한 층 강화된 도면 해독능력으로 고객들이 더욱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가공 범위가 다른 가공업체보다 더 크고 넓어서 타 업체에서 수행하기 힘든 작업도 고객의 요구에 모두 맞출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삼미메탈에서 생산하는 제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중 주력 제품은 무엇인지 소개한다면?

저희는 주문생산방식을 수행하고 있다. 포스코 일차 협력사인 제작업체와 자동차부품업체, 선박, 태양열, 판넬, 건

설회사, 교량 등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부품이나 제품을 주문하시면 그것에 맞게 만들어 드리고 있다.

개발한 제품이 주로 어디로 납품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하다.

업체에서 주문하시는 것이 바로 제품이 되거나 부속이 되기도 한다. 주로 포스코 1차 협력사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태양열 판넬이나 문, 건설 자재, 교량 등 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전남 제일의 정밀 가공업체로 성장하기 위해 여러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다.

특허청의 기술인증도 획득한 것으로 안다. 생산 시공 기술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발전된 자재생산 기술과 시공기술 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창조적인 기술과 혁신적인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있는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전남동부지역에서는 작업을 위해 보유한 장비가 최고 수준이다. 고가인 레이저 기계가 3대나 있고 가장 큰 8미터 대형 레이저 기계도 보유하고 있다. 절곡기도 8미터로 이 지역에서는 가장 큰 절곡기 중 하나다. 또한 레이저 플라즈마, 샤링, 절곡, 밴딩, 그리고 자재까지 확보하고 있다. 생산은 도면을 접수 받아서 캐드로 해독하고 설계해서 기계프로그램으로 변형 후, 현장에 작업을 넘기면 현장에서 절단, 절곡, 밴딩 제품을 생산하고 검수하고 납품하는 형식이다.

삼미메탈은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서비스로 미래의 일류 기업에 새롭게 도전한다는 기업이념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설립 과정 및 운영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소개를 듣고 싶다.

저희 삼미메탈은 남백원 대표님의 중앙기업, 삼미금속의 30년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발전한 업체다. 금속샷시 기타 도소매로 시작하여 자재를 유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가공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발전된 인터넷

과 교통 덕분에 유통까지 활발하게 되고 있다.

기업이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삼미메탈의 앞으로 비전 목표를 듣고 싶다.

현재 많은 가공업체들이 다양한 범위 안에서 가공작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작업을 맡기는 원청들은 각자의 범위에 맞춰 여러 곳에 나누어 작업을 맡기고 있다. 저희 삼미메탈은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 쪽에 작업이 들어오면 원시스템으로 거의 모든 가공이 마무리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고객들이 더욱더 편하게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울촌산업단지에 회사를 설립하게 된 배경이 있는지?

처음에는 순천 서면에 회사가 위치했다. 회사가 발전함에 따라 대형차량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울촌산단에 입주하게 되었다. 고속도로와 잘 연결되어 있고 다른 지역이나 공단에 가깝다는 점에 크게 끌렸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울촌산단의 장점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가까운 곳에 산단이 여럿 있고 많은 업체들이 다양하게 울촌산단 내에 입주해 있어서 운반비 절약과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크다.

광양만권에 입주해 있는 기업으로서 제시하는 광양만권의 발전상이 있다면?

권오봉 청장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면 아직 광양만권으로 출근할 때 차량이 없는 사람은 이동이 어렵다는 것이다.

신입 인력을 채용할 때 다른 지역보다 선호도가 낮은 것도 교통 불편이 크다. 자체적으로 통근버스가 없거나 적은 기업의 경우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또한, 지금 초남공단으로 가는 길이 조금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면 좋겠다.



## 임직원들과 속닥속닥

- Q1 우리 기업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A1 조재성 레이저 정밀가공업체다 보니 신경써야 할 부분도 많고, 업무 특성상 조심해야 할 부분도 많다. 직원이 많지 않은 편인데 그래서 바쁠 때는 힘들기도 하지만 더 돈독해지는 면이 있다. 다른 회사보다는 소통의 기회도 더 많고 서로에 대해서 빨리 알 수 있어, 서로를 배려해 일을 진행하면서 큰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
- Q2 삼미메탈의 자랑할 만한 기업문화가 있다면?
- A2 조재성 창립기업에 휴무하는 회사도 있었지만 저희는 매년 행사를 한다. 물론 쉬고 싶기도 하지만 회사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다. 직원들끼리 등산을 하기도 하고, 체육대회를 한 적도 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열정적으로 참여한다. 화기에애하고 웃음도 많고, 서로 의지도 하고 참 가족같은 분위기의 회사다.
- Q3 회사와 관련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 A3 조재성 입사하고 처음 갔던 여름 야유회가 기억난다. 그때 '이런 회사라면 오래 다닐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난생 처음 래프팅을 하러 갔는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혼자서만 노를 저으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그런데 다 같이 하나 둘, 구령을 외치며 노를 저으면 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구성원들과 함께 웃으며 전진하다보니 회사생활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표님 과도 편하게 식사하고 대화하고 다른 체육활동도 하면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때의 좋은 기억이 크게 자리 잡아서 아직도 즐겁게 회사를 다니고 있다.
- Q4 직원으로서 이뤄내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 A4 조재성 관리부 여직원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경리정도로만 보실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삼미메탈에서 일하다보니 꼭 그렇지 않은 않았다.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일을 하다 보니 더 높은 업무능력이 생기기도 하고,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되기도 한다. 앞으로도 스스로 자존감을 더 높일 생각이다. 그만큼 제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따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다른 분들도 저를 그만큼 믿고 맡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 242㎢ 부지에 2020년까지 5,61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올해 6월에 이미 0.49㎢ 규모의 1단계 부지를 완료하였다. 이곳에는 벌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들어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남도, 광양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2018년까지 4,250㎡ 부지에 602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7,462㎡)의 융복합소재 실증화지원센터가 건립되는데,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과정과 생산 공정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술지원 및 인프라 연계활용으로 실증화 지원이 가능한 종합지원 서비스망을 제공하게 되며, 30여 명의 상주 연구 인력과 770여 명의 고용창출, 연 953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로 광양만권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또한,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화 R&D에도 209억 원이 투입되게 되는데 해외장비 이용 절감을 통해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외국인 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해외 유수기업들과의 풍부한 비즈니스 기회도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외국인투자지역이 1단계 조성부지에 82,641㎡ 규모로 지정되게 된다.

올 9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

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마치게 되면 전라남도의 지정고시를 거쳐 국비와 지방비(전라남도 및 광양시) 246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를 먼저 구입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게 되는데 연간 임대료로 분양가격의 1%만 부담하게 된다. 또한 5년간 법인세, 취득세와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세금감면 혜택도 주어지게 된다.

아울러 세풍산단 입주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 시설도 지원하게 되는데, 진입도로 1.38km에 372억원, 공업용수도 5.24km와, 폐수처리시설 1,000㎡/일에 265억원을 투자하여 2019년까지 완료하게 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2단계 0.41㎢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2017년 말부터 용지보상을 실시하게 되는데, 1차 석유화학 원료생산 위주의 여수국가산단을 지원하는 고부가가치의 기능성 소재 기술개발환경 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화학산업은 중동, 중국 등 후발국들의 저가공세와 미국, 일본 등 선진기술을 앞세운 각축 속에서 어려움이 처해 있는 실정이지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기능성화학소재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기존의 범용화학 중심지에서 고부가가치의 기능성화학소재 핵심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무한성장 잠재력을 지닌 광양만권의 떠오르는 투자중심지

##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

## 광양세풍산업단지 조성

정밀화학, 정밀기계 제조 및 부품 등 미래소재 산업을 유치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 수요에도 즉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맞춤형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 여수시



## 두 번째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더욱 화려해졌다

제2회 여수밤바다 불꽃축제가 더욱 화려해진 불꽃 공연으로 이순신광장 및 장군도 해상에서 개최되었다.

불꽃축제 주제를 '여수의 밤, 그리고 별'로 정하고, 다양한 불꽃 연출을 통해 이를 풀어내었다. 올해 축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불꽃쇼다. 불꽃과 조명·레이저가 조화를 이뤄 보다 생동감 있고 임팩트 있는 불꽃이 연출되었다. 움직이는 차구는 최근 유럽 등 테마파크에서 새롭게 적용하는 연출형태로 화려하고 다양한 불꽃연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지난 축제에 26만여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수밤바다와 어우러지는 불꽃을 관람했다"며 "올해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여수의 밤을 희망과 추억의 밤으로 기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광양시

## 전국 최초, 민·관 협력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공식 출범

광양시는 만 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전국 최초로 민·관이 협력해 설립한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기념행사는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지정기탁금 전달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됐다. 지정기탁금 전달식에서는 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이 기탁자를 대표해 2014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어린이보육재단에 지정 기탁되어 있는 315,956,250원을 보육재단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황재우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보육재단이 아이 양육에 대한 새로운 창을 제시하고, 도시를 브랜드화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 최초 설립에 이어 전국적인 롤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순천시

## 순천시, 7월에 태어난 첫 아이에게 "순천아이 꿈 통장" 전달

저출산 극복을 위해 그동안 3자녀 이상에게 지원하고 있던 출산장려금을 변경해 올해 7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아이부터 매월 5만원씩 5년 동안 적금으로 300만원을 지원한다. 최초 주인공은 조례동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 아이로, 지난 1일 오전 2시 15분에 태어나 꿈 통장을 지원 받는 첫 주인공이 되었다. 7월에 태어난 첫째아이는 출생신고 후 농협 순천시 출장소에서 아기이름으로 순천아이 꿈 통장을 개설했으며, 13일 시장실에서 꿈 통장 전달식을 가졌다. 조충훈 시장은 "첫 출생아가 건강하게 자라서 세상의 빛과 같은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축하의 인사와 함께 순천아이 꿈 통장과 출산축하용품 꾸러미를 선물했다.



## 순천 울촌제1산단 (주)GSDK 투자기업 공장 가동

울촌제1산단에 투자한 조산화아연 생산업체인 (주)GSDK 기업이 생산 개시 가동식을 가졌다. 울촌제1산단에 설립된 (주)GSDK는 멕시코 프로멕스 그룹이 700억원을 투자한 자회사로 제강분진에서 조산화아연을 추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며, 2013년에 착수해 공장 건물과 기계설비가 완료돼 공장을 가동하게 됐다. (주)GSDK 공장 가동으로 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에서 직업 훈련을 받은 순천지역의 20대 청년고용과 함께 70여명의 고용이 창출됐다.



## 하동군

## 하동군, 3일간 국내·외 25만 관광객 한여름 무더위 즐겨... 세계축제도시 성큼

'가자! 알프스 하동, 찾아라! 황금재첩'을 슬로건으로 한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 제3회 알프스 하동 심진강 재첩축제가 7월 21~23일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축제는 국내·외 25만 관광객의 참여 속에 진행되었으며 하이라이트는 '황금·은재첩을 찾아라'. 지난해까지 200개였던 황금재첩에 올해 은재첩 400개가 추가되면서 열기가 한층 고조됐다. 또한 뉴질랜드 하카 춤, 뮤지컬 '이순신의 바다', 어머니의 강 '심진강'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2017년 세계축제도시 선정 목표 달성을 위해 해외 유명 공연팀과 세계축제 전문가를 대거 초청해 축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글로벌 축제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 입주기업





# 順天

## — 깊어가는 가을색의 잔잔한 위안 순천

천학의 도시,  
생명의 땅 순천은 자연이 선물한  
특별하고 아름다운 공간이다.  
소중한 인연과 함께 어느새  
성큼 다가온 가을 문턱에서  
익어가는 낭만을 느껴보자.

### 해 질 녘의 황홀함을 만나다. 와온 해변

해변 앞바다에는 솔섬이라 불리는 작은 무인도가 있다. 이 섬은 학이 납작 엎드린 모양이라 하여 학 섬이라고도 하고, 밥상을 엮어놓은 것 같다 하여 상(床)섬이라고도 하는데, 예전에는 섬 안에 주막이 있어 뽕배(꼬막을 잡을 때 쓰는 널)를 타고 조업을 나갔던 어부들이 목을 축이고 돌아왔다고 한다. 와온 마을은 전형적인 작은 어촌마을로 와온 해변 앞바다에는 짬뽕어, 새꼬막, 숭어, 맛, 찰랑게, 낙지 등의 수산자원이 풍부하며 특히 꼬막생산지로 유명하다. 썰물로 인해 드넓은 개펄이 드러나면 일명 'S'자 라

인이라 불리는 좁고 구불구불한 물길의 생기고, 개펄과 어우러진 갈대밭과 칠면초 군락, 천연기념물 흑두루미를 비롯한 겨울 철새의 모습 등 순천만 특유의 풍경이 펼쳐진다.

와온 해변은 무엇보다 낙조 풍경이 아름답기로 이름난 곳이다. 솔섬 너머로 해가 넘어가면 드넓은 개펄과 주변을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장관이 연출되는데 이 풍경을 담으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와온 마을 앞바다에 자리하고 있는 해변은 붉은 석양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해안을 따라 걷는 즐거움이 있는 매력적인 곳이다.





#### 갈대, 침과 비움을 말하다.

##### 순천만 습지 & 용산전망대

순천만 습지는 세계 5대 연안 습지 중 하나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생태관광지이다. 생태수도 순천시를 완성해 주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이곳에는 드넓은 갈대 군락은 흑두루미와 검은머리갈매기, 황새, 저어새 등 국제 희귀조류의 안식처이며, 끝없이 펼쳐진 갯벌에는 바지락, 게, 짬뽕어 등 다양한 어패류가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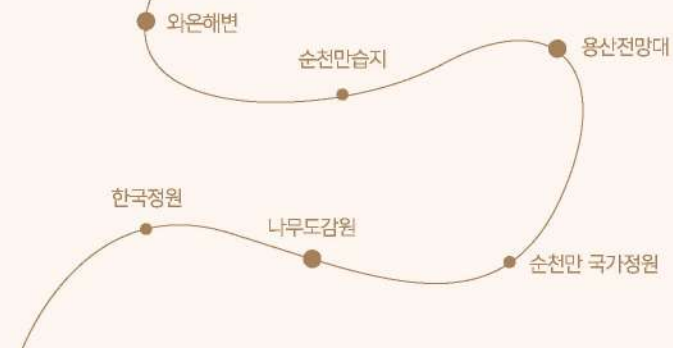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지만 백로와 왜가리가 먹이를 찾아 날아드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또한, 순천만 습지에는 자연 생태관, 순천만 천문대, 자연의 소리 체험관, 순천 문학관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있다.

순천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찾으려고 한다면, 단연 순천만 S자 곡선의 낙조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해 질 무렵 황금빛으로 물든 수로가 S자로 흐르는 풍경은 너무나 아름다워 이곳 풍경을 담기 위해 많은 사람의 발길이 이어진다.

순천만 습지의 최고의 뷰 포인트는 용산전망대이다. 이곳은 매표소로 입장하여 갈대밭 사이로 놓인 길을 따라가서 갈대밭이 끝나는 곳에서 산길을 걸어가면 된다. 산길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고 도착할 수 있다. 다만 일몰을 감상하고 나면 해가 진 만 습지는 자연보호를 위해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았으니 주의하시길.



#### 우리나라 나무와 전통정원의 만남,

##### 나무도감원 & 전통정원

순천만과 함께 동천-봉화산 둘레길로 이어져 도시 전체가 하나인 큰 정원을 이루고 있는 순천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다. 수목원, 습지센터, 세계정원 등 다양한 산림휴양 체험을 위한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가족들뿐 아니라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사랑받는 장소다.

어느 구역으로 가든 순천만 정원을 둘러보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서문으로 들어서면 크게 수목원 구역과 습지센터 구역으로 나뉘는데, 수목원 구역에서는 나무도감원과 한국정원, 수목원 전망지, 철쭉정원을 거쳐 습지센터 구역으로 내려오는 코스가 가장 무난하다. 나무도감원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만나는 느티나무, 팽나무를 비롯해 이야기가 있는 나무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 순천만 정원이 조성되면서 이곳으로 오게 된 나무들의 사연도 다양하다. 가장 먼저 순천만 정원에 옮겨진 소나무인 '지구의 정원 1번 나무', 5분만 늦었어도 잘려나갈 뻔한 '5분 전 은행나무', 두 번이나 벼락을 맞고도 100년 넘게 사는 세 그루 은행나무인 '근심 먹는 나무' 등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나무들을 만나 볼 수 있다. 나무도감원을 지나 다리를 건너면 한국정원으로 이어진다. 밝은 빛을 맞이한다는 뜻의 연희문이 있고 왕의 정원, 군자익정원, 소망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Festival

클 편집실

# 오색 창연한 가을 빛 담은 축제 속으로



9.21~9.24 광양 전통숯불구이축제



9.23~9.24 여수 여자만갯벌 노을체험행사

11.3~11.5 순천만갈대축제

10. 2주째 하동 토지문화제



## 광양 전통 숯불구이 축제

빛과 꽃, 맛의 어울림! 숯불구이 사랑!

하루가 다르게 높고 투명해지는 하늘, 풍요로움이 가득한 가을의 문턱에서 화려하게 펼쳐지는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의 장으로 가보자! 예로부터 광양 불고기는 "천하일미 마로 화적"이라 하여 청동화로에 참숯불을 피우고 구리석쇠에 잘 손질된 한우를 구워 먹는 것으로 그 맛에 있어 천하에 최고의 맛으로 평가되고 있다. 숯불구이 축제를 통해 관광객들은 야외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전통참숯으로 구워낸 숯불구이의 진미를 맛보면서, 다채로운 공연과 향토 민속을 즐길 수 있다.

📅 2017.9.21(목) ~ 9.24(일) / 4일 간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남등길 6

☎ 061-797-3333

🌐 [www.gwangyang.go.kr/tour\\_culture](http://www.gwangyang.go.kr/tour_culture)

## 여수 여자만갯벌 노을체험행사

여수의 서쪽에 위치한 여자만은 길게 뻗은 해안선을 따라 드리누운 웅장한 갯벌과 아름다운 노을(해넘이)이 유명한 곳이다. 갯벌노을축제는 여주시 소라면 사곡리 바닷가 일원에서 갯벌과 노을을 주제로 개최되고 있는 갯벌체험 축제이다. 갯벌 노을축제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낭만적이며 저녁노을은 환상적이다. 건너자전거를 타고 해안가를 달려도 충분히 아름답고 낭만적이다. 해안도로가 인접한 곳곳에 위치한 카페 촌과 점점이 떠있는 아름다운 섬들, 저물어가는 가을바다를 거닐며, 붉은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낭만을 느끼고, 연인 및 가족들이 다양한 바다체험을 통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축제이다.

📅 2017.9.23(토) ~ 9.24(일) / 2일 간

📍 전라남도 여주시 소라면 사곡리 일원

☎ 061-659-4744

🌐 <http://tour.yeosu.go.kr>

## 하동 토지문화제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는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의 고향으로 토지민속 문학마을을 1998년부터 조성하여 최첨단책, 토지세트장, 평사리문학관, 전통한옥체험관, 전통문화 전시·체험관이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 제1의 문학체험 마을이며 문학기행은 물론, 청소년 문학교실, 한옥체험 등 4계절 내내 다양한 민속문화 체험으로 국민 정서함양 및 민속 생태 원형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 최고의 문학테마 관광지로 올 가을 추천할 만한 여행지로 손색이 없다. 오가는 길에 만나는 높고 푸른 하늘과 악양의 황금 들판, 코스모스 꽃길에 만들어 내는 풍광 또한 무척이나 아름답다.

📅 2017.10. 2주째 / 3일 간

📍 경남 하동군 악양면

☎ 055-880-2363

🌐 <http://tour.hadong.go.kr>

## 순천만갈대축제

갈대 침과 비움을 말하다!

순천만은 800만평의 연안 습지로 갯벌에 펼쳐져 있는 갈대밭이 40만 평에 달하고 S자형 수로가 더해져 장관을 이루는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다. 갯지렁이, 조개류 등 갯벌 생물과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 노랑부리저어새 등 200여 종의 조류도 만나볼 수 있다. 순천만 갈대 축제에서는 갈대밭 체험·갯벌 체험·철새 탐방 등 자연 관련 체험 행사, 포크 콘서트·재즈 공연·거리 공연 등 음악 관련 행사, 먹거리 장터·지역 특산물 판매 등 음식 관련 행사, 순천만 갈대 길 걷기대회 등 다양한 분야의 행사가 펼쳐진다.

📅 2017. 11.3(금) ~ 11.5(일) / 3일 간

📍 순천만 습지 일원

☎ 061-749-5502 (관광진흥과)

🌐 [www.suncheon.go.kr](http://www.suncheon.go.kr)



어느새 9월, 연초에 포부 있게  
세운 커리어 목표를 달성했나?  
아름에서 다시 한 번 남은 한해를  
잘 보내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걸  
도와줄 마인드 세팅이 필요하다.



## 업무에 도움이 되는 직장인 성공하는 직장인의 의미 있는 커리어 쌓기

### Ⅰ 직장인의 업무 생활 및 만족도

근무지 만족도는 '직장 분위기와 밀접' 직원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실시한 한 기업의 설문조사결과 158명 가운데 74%인 117명이 응답했으며 직장 분위기 활성화 필요성에는 응답자의 85.4%(100명)가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근무지 만족도 평가 기준은 47.0%인 55명이 '직장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업무만족도' 30.7%(36명), '직장동료와의 관계' 17.1%(20명), '상사와의 관계' 4.2%(5명), 기타 1명 순으로 조사돼 근무지 만족도와 직장 분위기가 상당한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직장 분위기 활성화 방안 에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는 33.3%(39명)가 '관행적인 분위기'라고 대답했고, '직원들의 관심 부족'이 28.2%(33명)가 그 뒤를 이었다. 또 직장 분위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과제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47.8%(56명)가 직장동료와의 호의적 유대감과 단결력을 기를 방안 촉구를 기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41.0%(48명) 직원들이 후생복지 확대라고 응답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과중한 업무는 부담해 줄 것과 일이 힘든 부서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적극적인 배려와 대책 마련으로 즐겁고 재미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 Ⅱ 직장인들의 커리어 관리 5계명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도 경력 10년 차 이상의 베테랑에게도 어려운 것이 이 커리어 관리다. 어떻게 하는 걸까? 라고 질문한 다면 좀 많이 광범위한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래 글에서도 나오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이어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 일하는 것이 내 장기적 목표에 있어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를 잘 살필 줄 알아야 한다.

#### TIP. 직장인들의 커리어 관리 5계명

1. 너무 잦은 이직을 하지 말라.  
- 사유는 있겠지만, 충성도에 대해 의심받을 수 있다.
2. 항상 회사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 역지사지,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3. 도전할 비전을 반드시 세워둬라.  
- 목표가 분명해야 길을 잃지 않는다.
4. 성공한 사람을 벤치마킹하자.  
- 최고가 된 사람들을 분석해보자.
5. 직장생활에서 남는 건 사람이다.  
- 사람을 남기자, 회사가 남아주진 않는다.

### Ⅲ 의미 있는 커리어를 쌓기 위한 노력

인간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고 배워나가는 존재다. 요즘

같은 경쟁 시대에 자기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자기계발은 필수! 경쟁을 떠나서 자신이 한층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다.

#### 문제는 마음가짐이다!

참 '마인드' 즉,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항상 '자기 일을 사랑하는 마음, 일을 즐기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법이다. 고로 자신의 일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열정을 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열정은 능력으로 이어지기 마련. 그리고 회사와 내가 함께한다는 '원+원 마인드'도 나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다.

#### 나의 상사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자!

직장에 대한 뿌리 깊은 고정관념 중 하나는 조직의 위계질서가 나의 성장을 도울 거란 생각이다. 부하 직원은 직속 상사를 위해 일하고 직속 상사는 자신의 상사를 위해 또 그 상사는 사장을 위해 사장은 이사회를 위해 일한다. 물론 지금도 이런 위계질서는 존재하지만 상사에게 관리 받는다는 생각에 열매이지 말아야 한다. 이제 상사를 클라이언트라 생각하자. 상사에게 소속된 부하 직원이라 생각하고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상사와의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관리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남은 한 해에 더 큰 목표와 커리어 플랜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기 생각과 습관, 행동을 관리하자.

#### 생각이 결과를 만든다!

성공하려면 사실과 생각을 구별해야 한다. 사실은 현실의 한 조각이고 생각은 현실에 대한 해석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보다는 생각이 성패를 결정짓는다.

예를 들어 계속 불경기가 이어진다고 치면 불경기 자체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사실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내 생각이 결정한다. 불경기에 맞닥뜨렸을 때 이런 불황에 취직은 하늘의 별 따기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불경기를 극복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회사에 내가 필요하겠군. 현실을 외면하는 몽상가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현실을 해석할 수 있게끔 자기 생각을 조율하라는 뜻이다.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는 좋지 않은 상황이 닥쳤을 때 다시 기운을 차리고 도전할 수 있게 해준다.



##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 꿀팁

## 자동차 할부!

알뜰하게 챙기는  
유용한 정보 TIP

많은 사람이 자동차 할부 금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의 말만 듣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 놓치는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자동차 할부금융의 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1. 자동차할부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 을 적극 활용하자  
대출 상품은 자동차 대리점 또는 제휴점의 말만 믿고 선택하지 말고,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제휴점이 제시한 대출금리 등의 조건이 적절한 수준인지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활용 방법

- 여신금융협회 공시실(gongsi crefia.or.kr) 접속 -> 상품공시 클릭 -> (할부) 자동차 금융상품 선택 -> 본인 해당 조건 입력 후 검색
- \* (신차) 차종(47개), 현금구매비율(10, 20, 30%), 대출기간(12, 24, 36개월) 입력
- \* (중고차) 신용등급(1~10등급), 취급수수료(유, 무), 대출기간(12, 24, 36개월) 입력
- 조회결과 자신에게 유리한 2~3군데 여전사를 선택한 후 각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정확한 대출상담을 신청
- ☞ 비교공시시스템 조회결과와 실제 상담결과가 상이한 경우
- ☞ 여신금융협회(☎02-2011-0726), 금융감독원(☎02-3145-8781)에 신고

## 2. 다이렉트 대출상품 이용 시 금리부담 경감

일부 여전사는 제휴점 등을 거치지 않고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다이렉트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를 조회하면 회사명 옆에 “D”가 붙어있는 다이렉트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 3. 대출계약은 14일 이내 철회 가능

할부금융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구입 후 다른 금융회사로 대출을 변경하고 싶다면, 철회권을 행사하면 된다.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라면 개인인 경우 4천만 원 이하 신용대출(담보대출은 2억 원)에 대하여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원리금과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16. 12. 19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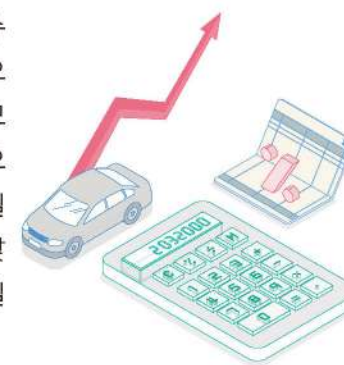
## 4. 중개수수료는 절대 지급하지 말자

고객은 여전사에 지불하는 이자비용, 취급수수료 이외에 자동차판매사원이나 할부 제휴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절대 지급하면 안된다. 이미 자동차판매사원이나 할부제휴점 등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대출중개수수료피해 신고코너  
(☎ 02-3145-8530)

5. 자동차판매사원 등에게 여전사별 금리조건 비교를 요구하자.  
자동차판매사원 등을 통해 여전사를 소개받을 경우에는 고객 본인 조건에 따른 여전사별 이자율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해 주도록 요구하자.

6. 금리 비교시 취급수수료를 포함한 실제금리 기준으로 비교하자.  
자동차할부 취급 시 취급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급수수료와 금리를 모두 포함한 실제금리를 기준으로 여전사간 비교해야 한다. 실제로 명목금리가 타사보다 낮더라도 취급수수료를 합친 실제금리는 더 높아질 수 있다.



## 7. 충분하고 명확한 설명을 들은 후에 계약서에 서명하자.

금융상품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이 할부조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취급 수수료를 포함한 실제금리, 중도 상환 시 부담하게 되는 중도상환수수료 등 계약서에 명시된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를 청취할 필요.



## 8. 대출 상환 후에는 반드시 저당권 말소!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관련 할부금융 등을 모두 상환하였더라도 자동차 저당권은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는다. 저당권 말소는 여전사로부터 저당권 말소 서류를 받아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여전사에 맡길 수도 있다. (대행처리) 저당권 말소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대행처리의 경우, 관련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9. 계약 시 계약 내용은 꼼꼼히 확인한다.

자동차 할부금융 등의 업무처리는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하지 않고, 대리점이나 제휴점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 시 이자율, 대출 기간, 상환방법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을 요구하고, 제휴점의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에 다른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다이렉트 대출은 여전사의 콜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대출계약을 진행하므로 제휴점은 관여하지 않는다.





# 기업홍보와 인력채용을 한자리에서 해결하는 전남동부권일자리박람회 개최돼요!





탐나는 정보가 가득,

**sns**

<http://webzine.gfez.or.kr>

GFEZ 저널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GFEZ 저널을 읽고 느낀점이나 독자의 솔직한 소감을 들려주세요. 이 코너를 통해 소개를 해드리는 것은 물론 향후 편집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 칼럼이 좋았어요!

**Cartoon** 여수 경도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카툰 구성이 알차고 좋았습니다. 경도에 대한 내용을 만화를 통해 보여줘서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김홍순 독자

**Invest in GFEZ** 국제 해양관광지의 중심으로...



날씨가 더워지고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기사를 보니 내일이 라도 당장 휴가를 떠나고 싶네요~ 아시아의 모나코로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즐긴 추억을 쌓고 힐링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되길 응원합니다~!!

이주연 독자

### QR코드로 참여하는 Quiz

아래 QR코드를 찍으면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지는 퀴즈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퀴즈 참여 및 의견을 남겨주신 독자분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이 전달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응모방법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의 QR리더기로 스캔하시면 퀴즈에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광양청 웹진 주소 (<http://webzine.gfez.or.kr>)를 입력해 비밀번호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응모기간 2017년 11월 11일 까지

### 당첨자 선물

- 1등 (1명)  
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
- 2등 (2명)  
도서문화상품권 3만원권
- 3등 (5명)  
스타벅스 음료 기프티콘



### 지번호 당첨자

- 1등 최 \* 숙(4600)
- 2등 김 \* 순(7401), 이 \* 연(5322)
- 3등 조 \* 연(1759), 홍 \* 희(6663), 정 \* 윤(0908), 이 \* 준(5383), 김 \* 용(9288)

# 신산업·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국제무역도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 다양한 비즈니스기회



- 5개 지구 17개 단지(67.37km<sup>2</sup>)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산업지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물류산업-광양지구
- 제조산업-울촌지구
- 주거산업-신덕지구
- 복합산업-하동지구
- 관광산업-화양지구

## 최적의 산업인프라



· POSCO 광양제철소



- 여수국가산업단지
- 풍부한 산업단지 보유
- 저렴한 지가로 즉시 입주가능한 산업단지 확보

**동북아 비즈니스 투자 ① 번지**

[www.gfez.go.kr](http://www.gfez.go.kr)

## 편리한 교통인프라



- 세계적인 국제항만-광양항 (2016년 약284백만톤 처리)
- 1시간권 항공시설-4개 보유 (광주, 여수, 사천, 무안)
- 수도권 연결 KTX (여수-순천-서울)
- 5개의 고속도로 연결 (수도권 3시간대 접근 가능)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떠오르는 투자 중심지 세종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광양시 광양읍 세종리 일원
- 사업면적 : 2,42km<sup>2</sup> (73만평)
- 분양면적 (53만평)
-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
- 외국인 투자지역
- 바이오 패키징 산업
- 제철 연관산업
- "2017년 12월말까지 투자자에 한해 분양가 15% 할인!"

## 관광·레저, 생활환경



-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
- 3개의 국립공원과 100km이내 530만명 배후시장확보
- 한국에서 가장 저렴한 토지가격과 수용권 부여



- 정주여건을 위한 주거, 교육, 의료, 레저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를 위한 지원

- 투자상담에서 사업개시까지 Non-Stop 서비스
- 업종에 맞는 입지선정 지원
- 시장조사 및 기업 협력파트너 알선
- 경영지원 보조금 지원